

윤석열 지지 전문가 그룹 '공정과 상식' 출범

송고시간 | 2021-05-21 12:31



(서울=연합뉴스) 황광모 기자 =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지지하는 전문가그룹인 '공정과 상식을 위한 국민연합(공정과 상식)'이 21일 오전 출범했다.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.(오른쪽부터) 공동대표인 정용상 동국대 명예교수, 송상현 전 국제사법재판소장, 김태규 전 부산지법 부장판사, 김민전 경희대 교수. 2021.5.21

hkmpooh@yna.co.kr

<저작권자(c) 연합뉴스, 무단 전재-재배포 금지> 2021/05/21 12:31 송고

본 기사는 연합뉴스와의 계약없이 전문 또는 일부의 전재를 금합니다

Copyright (C) Yonhapnews. All rights reserved.